

U.S WEEKLY



박현지

02 3770 2611

hyunjee.park@yuantakorea.com

조윤수

02 3770 3682

yunsu.jo@yuantakorea.com

Key Data(04/09)

지수	S&P 500
증가 (pt)	4,128.8
시가총액 (십억달러)	36,513.8
60일평균거래대금 (억달러)	747.4
52주 최고가 (pt)	4,128.8
52주 최저가 (pt)	2,736.6
1M 수익률 (%)	5.9

Key Data(04/09)

지수	다우존스
증가 (pt)	33,800.6
시가총액 (십억달러)	10,297.2
60일평균거래대금 (억달러)	145.0
52주 최고가 (pt)	33,800.6
52주 최저가 (pt)	23,018.9
1M 수익률 (%)	4.7

Key Data(04/09)

지수	나스닥
증가 (pt)	13,900.2
시가총액 (십억달러)	22,740.5
60일평균거래대금 (억달러)	711.3
52주 최고가 (pt)	14,095.5
52주 최저가 (pt)	8,192.4
1M 수익률 (%)	6.4

YUANTA US WEEKLY



3월 증시조정 이후, 4월1주 증시상승

Weekly Review (04/05~ 04/09)

경제재개 행보와 함께 제조업경기 확장세도 뚜렷해

1) 연준의 물가상승률 2% 용인 발언과 함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세도 주춤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신청을 4월내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 및 여행규제 완화를 제시했고, 이런 경제재개 가능성성이 증시에 호재였다. 이에 따라 카니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등의 크루즈 주들이 주간으로 9~10%가량 급등했다. 그리고 기술주 조정세도 견하면서 FAANG주들도 주간으로 각각 3~8% 수익률을 기록했다.

2) 경제회복 전망과 함께 미국 제조업경기 회복도 두드러졌다. IMF가 21년 세계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0.5%포인트 상향조정한 6.0%를 제시했다 (특히, 국가별로 전망치가 미국 6.4%, 유로존 4.4%로 상향조정 됨). 미국 3월 ISM 서비스업 PMI는 63.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지표인 3월 비농업 신규고용은 91만6천명으로 작년 8월 이후 최대치에 달했고 실업률도 하락했다. 반면, 주간 실업보험청구자수는 74만7천명으로 전주대비 증가했고 예상치인 68만명도 웃돌았다.

Weekly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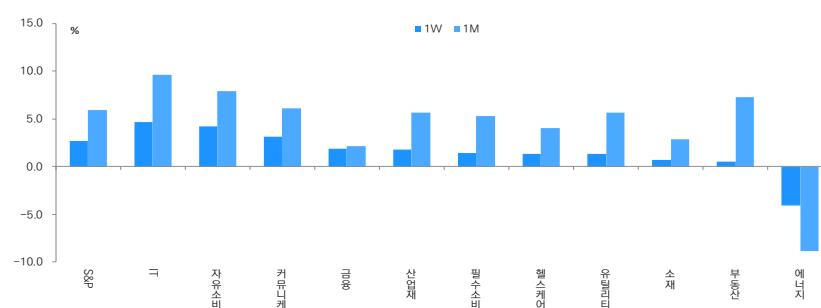
(pt, %)

	종가	1W	1M	3M	YTD	PER(TTM)	PBR(최근공시)
S&P 500	4,128.8	2.7	5.9	8.0	9.9	33.5	4.5
다우	33,800.6	2.0	4.7	8.7	10.4	29.9	5.1
나스닥	13,900.2	3.1	6.4	5.3	7.9	73.4	6.7
러셀 1000	2,325.6	2.6	5.7	7.5	9.7	34.9	4.4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업종별 등락률(%)

S&P 500 11 개 섹터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S&P500 상승 종목 Top5

(단위: 억 달러, %)

종목코드	종목명	1W 수익률	시가총액(십억달러)
ETSY	엣시	10.84	27.55
TWTR	트위터	10.82	56.82
ALGN	얼라이언테크놀로지	8.14	46.89
LB	리미티드 브랜즈	8.13	18.62
GPS	캡	7.20	12.16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S&P500 하락 종목 Top5

(단위: 억 달러, %)

종목코드	종목명	1W 수익률	시가총액(십억달러)
COG	카봇 오일 앤 가스	-6.31	6.94
BKR	BAKER HUGHES	-6.07	20.93
NOV	내셔널 오일웰 바코	-5.35	5.11
TAP	몰슨 쿠어스 브루잉	-5.21	10.89
HFC	할리프론티어	-4.92	5.71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Preview

1분기 실적시즌 본격화

지난주 3대지수가 모두 상승랠리를 펼친 가운데 14일부터 실적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증시가 상승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우량 금융주인 JP모건,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등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다. 이미 기업들의 실적추정치가 대거 상향조정된 가운데, 1분기 실적자체보다는 전망치에 더 초점을 둬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내는데 그간 소극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이던스는 실적회복 속도를 기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선행지표인 셈이다. 그 외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14일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투자들의 관심이 집중 될 것이다.

14일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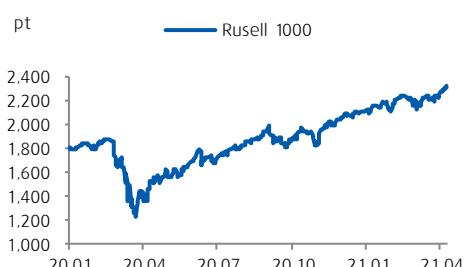
금주에는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3월 소매판매, 4월제조업지수, 3월 광공업생산, 3월 주택착공건수,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잠정치) 등이 발표 될 예정이다. 이중 3월 CPI는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진했던 가운데 기저효과로 크게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요 경제 행사로는 연준의 FOMC회의를 27~28일 앞두고, 14일 베이지북이 공개된다(기준 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 경기회복 속도를 기능하게 해줄 것).

S&P 500 지수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Russell 1000 지수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나스닥 지수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다우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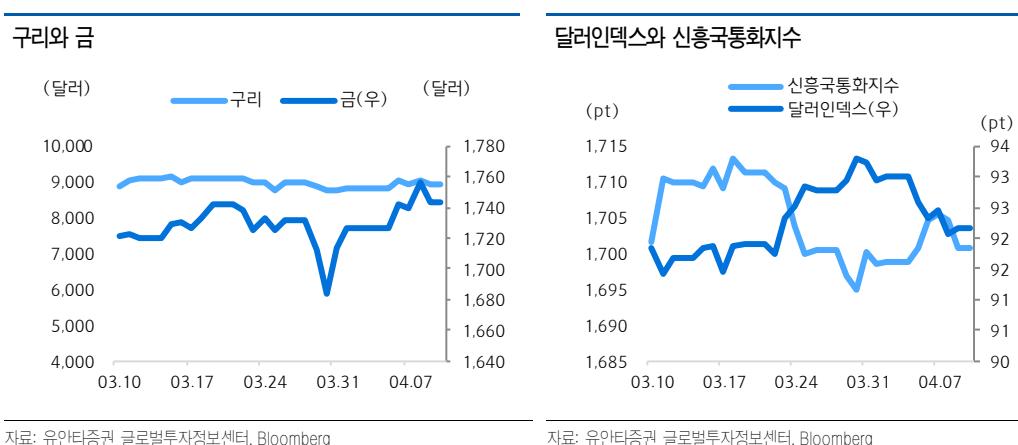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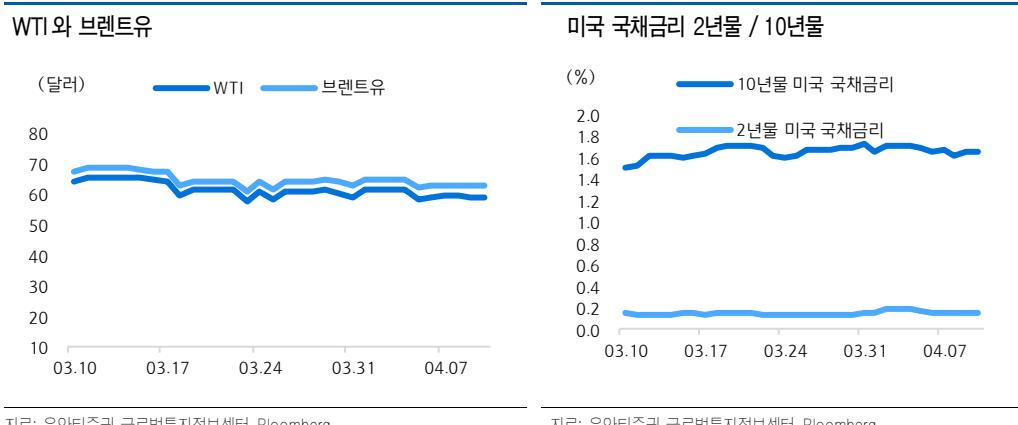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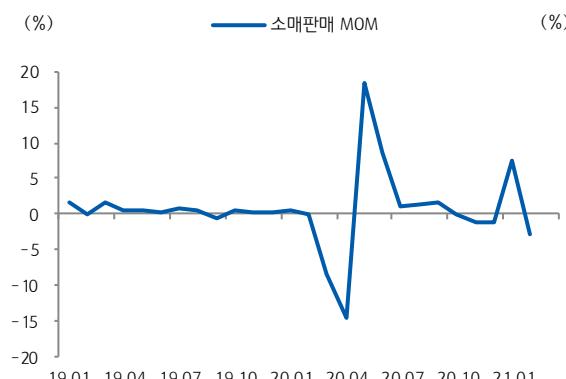
유가 불확실성 확대, 금리불안 축소

주간기준으로 국제유가인 WTI는 배럴당 3.47% 하락한 59.32달러를 기록했다. 경제가 회복에 따른 미국내 시추활동 재개 본격화와 OPEC+ 국가들의 감산량 축소행보에 따라 글로벌 원유생산량이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원유 공급 추세는 예측이 일정부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비해 수요회복 속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물론,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을 전망치가 상향조정됐고, 백신도입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원유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분기 부터는 원유의 공급 보다 오히려 수요회복 속도가 유가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달러화가 주간기준으로 0.85% 하락한 반면, 금값은 0.95% 상승했다. 미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2 1.71에서 4/2 1.67%로 하락했고, 30년물 국채수익률도 4/2 2.35%에서 4/2 2.34%로 소폭 하락했다. 경기지표 개선과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했지만,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물가상승률이 2%이상을 기록하겠지만 일시적일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전주대비 금리불안이 진정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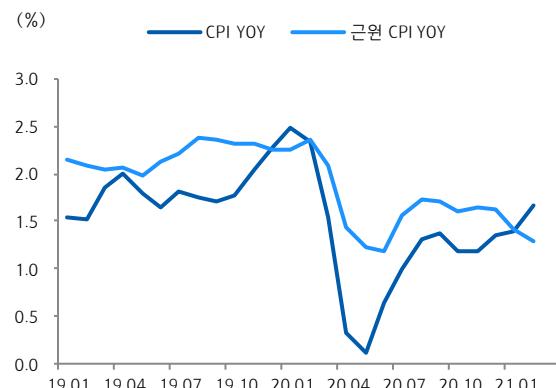


3월 소매판매 MoM 5.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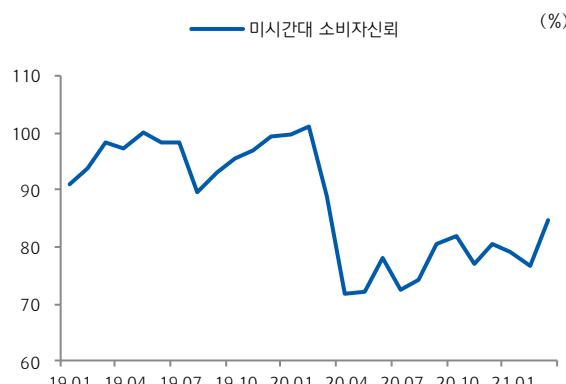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3월 CPI YoY 2.5% 증가 예상. 균원 CPI와 격차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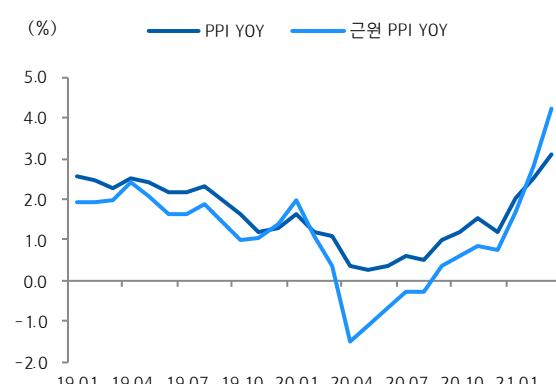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89 예상.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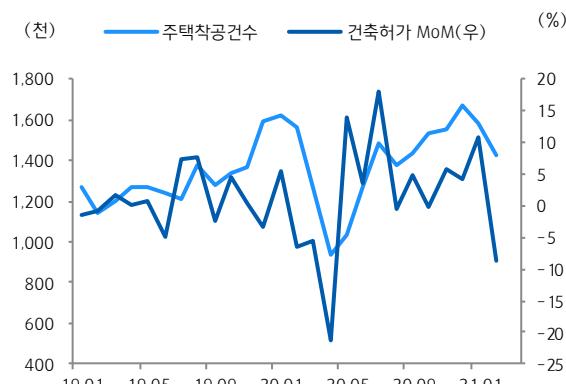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근원 PPI YoY 4.2% 상승. 당분간 기저효과로 인한 상승세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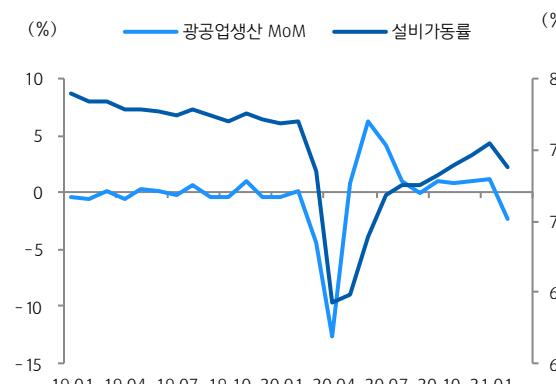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2월 한파 영향 축소, 3월 부동산 데이터 개선 예상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3월 설비기동률 75% 수준을 회복할 전망



자료: 유안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Bloomberg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박현지, 조윤수)
- 위 종목은 Yuanta Greater China Daily에 수록된 Yuanta Investment Consulting(대만) 소속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와 의견이 다를수 있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0%이상, Hold: -10~10%, Sell: -10%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준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